

### 3. 신안해저유물 제4차 발굴개요 (新安海底遺物 第4次 發掘概要)

李 浩 官

(文化財研究所 藝能民俗研究室長)

#### 1. 경위(經緯)

1977년 6월서부터 7월말까지 실시한 第 3次 발굴에 이어 금년(今年)에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간(個月間) 第4次 발굴을 실시하였다.

본격적(本格的)인 발굴(發掘)을 시작하기 전(前)에 발굴에 따르는 발굴단과 지도위원, 발굴위원들을 모시고 1978년 5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또한 발굴단 자체의 발굴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6월 14일 발굴단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현지기관(現地機關)의 협조를 얻음과 동시(同時) 행정적(行政的)인 지원(支援)을 받기위하여 해군지원단(海軍支援團), 전남도청(全南道廳), 신안군청(新安郡廳), 목포(木浦)경찰서, 목포해양(木浦海洋)경찰서 등의 책임자와 관계관을 모시고 동년(同年) 6월 16일 목포(木浦) 현지(現地)에서 기관장회의(機關長會議)를 개최하였다. 특히 금년도(今年度) 第 4次 발굴(發掘)의 목적(目的)은 77년도(年度) 第 3次 발굴(發掘)에서 실시하였던 4개(個)의 철제(鐵製)그리이드(Grid), A, B, C, D, 이외(以外)에 선체(船體)를 전부 카버하는 잔여 철제(鐵製)그리이드 설치를 주목적(主目的)으로 하였으며 이로 인(因)해 침몰(沈沒)된 선박(船舶)의 총(總)길이와 선폭(船幅)을 파악하는데 있었다.

또한 명문(銘文)이 있는 도자기(陶磁器)나 목제품류(木製品類)를 인양(引揚)하여 절대년대(絕對年代)를 규정(規定)하며 아울러 선체(船體)의 국적(國籍)과 선원(船員)의 신분(身分)을 파악하는데도 있었다. 그리고 잔존(殘存)한 선체(船體)의 침몰부분(沈沒部分)이 어느정도 해저(海底)에 남아 있는냐는 문제와 수중고고학(水中考古學)에서 일반적(一般的)으로 사용(使用)하는 수중촬영(水中攝影)과 수중(水中)T.V 촬영(撮影)등을 행(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對)한 시험적(試驗的)인 목적(目的)도 갖고 있었으며 교역선(交易船)의 선적물내용(船積物內容)과 선수(船首)와 선복(船腹) 선미(船尾) 부분(部分)에 선적(船積)한 교역품(交易品)의 분별내용(分別內容)도 확인(確認)하는데도 있었으며 해양(海洋)환경조사에 있어서도 해류(海流)의 속도(速度), 탁도(濁度)의 측정(測定) 부유물(浮遊物)의 종류(種類) 뱀의 밀도(密度) 등도 정확(正確)히 파악(把握)하는데 있었다. 특(特)히 선체인양(船體引揚)이라는 목적(目的)을 가정(假定)해 볼 때 에어리프트(Air-Lift) 사용(使用)에 있어서 어느정도 성과(成果)와 작업진도(作業進度)를 할 수 있

을 것인지에 대(對)한 첫 시도(試圖)도 하여보는데 뜻이 있었고 선박(船舶)의 출발지점(出發地點)이 어디였을 것인가 하는 것도 판명(判明)하는데 목적(目的)을 두고 4차발굴(次發掘)에 임(臨)하였던 것이다.

## 2. 발굴단(發掘團) 조직(組織)과 편성(編成)

第 3次 발굴(發掘)에서 조직(組織)하였던 발굴단(發掘團)의 조직편성이 第4次 발굴(發掘)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동을 가져왔고 인원(人員)의 증원도 갖게 되었다.

발굴단 단장	윤무병	충남대학교 박물관장
부 단 장	김정기	문화재연구소장
발굴 부장	이호관	예능민속연구실장
정리 부장	김기웅	문화재전문위원
관리 부장	김삼봉	문화재3과장
발굴 부원	윤덕향	문화재관리국직원
	윤근일	"
	김선태	"
	최태희	"
	박상국	"
	이명희	"
	이태호	국립박물관직원
	임영주	"
	권승환	"
	윤희원	"
	김성구	"
정리 부원	김연태	문화재관리국직원
	정일동	"
	김동훈	"
	배준학	문화재관리국직원
	윤용이	국립박물관직원
	김득풍	"
관리 부원	박상덕	행정사무관
	이정기	문화재관리국직원
	김민수	"
	조성용	"
발굴 위원	오세백	문화재관리관
	박용완	서울대학자연대교수
	김완수	"
	임응국	서울대학공대교수
	정양모	국립박물관수석학예관

		조성도	해군사관학교교수
		이병돈	국립선박해양연구소부소장
		지춘상	전남대학박물관장
발	굴	최희순	국립중앙박물관장
지도	위원		
		김원룡	서울대학박물관장
		김유선	원자력연구소부소장
		윤무병	충남대학교수 발굴단장
		전해종	서강대학교수

등이었으며 측면(側面)으로 지원(支援)하는 지원단(支援團)의 편성(編成)은 전남도청(全南道廳)과 신안군청(新安郡廳) 그리고 목포(木浦)경찰서 목포(木浦)해양경찰서 등이었으며 가장 적극적(積極的)인 지원(支援)은 해군지원단(海軍支援團)으로서 5.1전대사령관(戰隊司令官) 최인상대령(崔仁祥大領)을 비롯하여 그 예하(隸下)의 해난구조대(海難救助隊)와 덕수함(德壽艦) 도봉함(道峰艦)이었다. 특히 덕수함과 도봉함은 50여명의 해난구조대와 같이 첫시작부터 발굴(發掘)이 끝날때까지 해상(海上)에 머물면서 헌신적인 협조와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3. 발굴작업(發掘作業)

1977년도 선복부분(船腹部分)에 해당되는 부분에 폭(幅) 4m 길이 6m의 3인치 앵글의 Grid를 4개(個) 설치(設置)하여 각 Grid 마다 A, B, C, D로 명칭(名稱)을 달고 약(約) 1개월간(個月間) 작업(作業)을 하면서 상당량의 도자기(陶磁器)와 목제류(木製類), 칠기류(漆器類), 금속류(金屬類), 과핵(果核)등을 인양하였으나 금년(今年)에는 A, B그리드에 접해서 폭(幅) 4m 길이 12m M, N의 그리드와 C, D그리드에 접해서 폭 4m 길이 10m의 E, F그리드를 설치하였고 또한 E, F에 연해서 폭, 4m 길이 8m의 G, H그리드를 선수(船首)부분에 설치하였다. M, N그리드에 연해서 선미(船尾)쪽으로 폭(幅) 4m 길이 12m 의 O, P그리드를 설치하고 계속하여 폭 4m 길이 10m 의 Q, R 그리드를 설치하여 전체적(全體的)인 선체(船體)를 커버하는 작업(作業)을 마치고 본격적인 발굴작업(發掘作業)을 시작하므로써 지금까지 추정하였던 선체(船體)의 길이 27m의 것이 28.4m로 확인되었고 선체폭(船體幅) 역시 6~7m로 추정하였던 것이 8m로 확실히 되었다. 특히 발굴단(發掘團)이 발굴전(發掘前)에 추정하였던 명품(名品)들이 선수(船首)와 선미부분(船尾部分)에서 인양(引揚)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 발굴에 임한 결과 기대에 어긋났다. 그러나 수확(收穫)은 선수부분(船首部分)과 선복부분(船腹部分) 그리고 선미부분(船尾部分)에 따라 교역품(交易品)의 선적내용(船積內容)이 대략 판명(判明)이 된 것은 주목(注目)되는 사실이라 하겠다. 특(特)히 선미부분(船尾部分)에서 두개골의 출토(出土)는 선원(船員)의 국적(國籍)과 인종(人種)을 판별(判別)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으며 두개골(頭蓋骨)의 측정(測定)으로 중국선원(中國船員)임이 판명(判明)되었고 또한 선미부분(船尾部分)에서 일본제품(日本製品)으로 생각되는 유물(遺物)이 약(約)10점정도(點程度) 인양(引揚)된 것은 중요(重要)한 점(點)이라 할 수 있겠다. 77년도(年度)에는 고려자기(高麗磁器) 3점(點)이 인양(引揚)되어 많은 문제점(問題)

點)이 제시(提示)되었었는데 금년(今年) 역시 일본제품(日本製品)이 인양(引揚)됨으로 인(因)해 또한충 교역선(交易船)의 교역관계(交易關係)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問題)를 낳게 했다. 그리고 77년도(年度)에는 오수전(五銖錢)서부터 지대통보(至大通寶)까지의 주전(鑄錢)이 인양(引揚)되어 교역품(交易品)의 시대(時代) 규정(規定)을 1311년 경(지대통보(至大通寶)의 연대(年代))까지로 하한년대(下限年代)를 대략 추정하였으나 금년(今年)에는 흑칠기저부(黑漆器底部)에 「신미혜당진만일숙조(辛未兮塘陳萬一叔造)」라는 주자(朱字)로 쓰여진 명문(銘文)이 있으므로 인(因)해 좀더 정확한 하한년대(下限年代)를 정(定)할 수 있게되었다. 신미(辛未)는 년표(年表)에 의하면 1211年, 1271年, 1331年, 1391年으로 보이는 바 중국도자(中國陶磁)의 청화백자(靑華白磁) 발생시기(發生時期)를 1320년대(年代)로 현재까지 보고 있는 것에 따르면 선적(船積)된 도자기의 하한년대(下限年代)는 1331년까지로 정(定)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청화백자(靑華白磁)의 발생시기(發生時期)를 1320년대(年代)로 본다며는 본격적인 대외(對外) 무역품으로 할 수 있었던 시기(時期)는 1320년대(年代)부터 대량(大量) 생산(生産)이 되는 그후(後)의 시기(時期)로 봐야 될 것이며 이와같은 점(點)으로 볼 때 1331년까지는 아직도 청화백자(靑華白磁)가 교역품(交易品)으로 대량생산(大量生産)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됨에 도자기(陶磁器)의 하한년대(下限年代)를 1331년 신미(辛未)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교역선(交易船)의 출발지점(出發地點)이 과연(果然) 어디였을까 하는 것은 학계(學界)의 큰 관심사(關心事)였는데 이것이 금년(今年) 4次 발굴(發掘)에서 청동제(靑銅製)저울추가 인양(引揚)됨으로 인(因)해 확실하게 밝혀졌다. 청동제 저울추에는 양각(陽刻)으로 「경원로(慶元路)」라는 명문(銘文)이 있어 이로 인(因)해 양자강(陽子江)남(南)쪽 하구(河口)부근에 있는 원대(元代)의 경원항구(慶元港口)에서 출발(出發)하였다고 보며 이 지역은 명대(明代)에 이르러 영파(寧波)로 개명(改名)된 기록(記錄)이 있다.

해양(海洋)상태는 KIST해양환경조사에 의해서 조금과 사리때에 따라 해류(海流)의 속도차(速度差)가 몹시 심하고 해저면(海底面)은 평상시(平常時) 2.5노트이며 사리시에는 4.5노트의 유속(流速)을 갖고 있음이 판명되었으며 해상표면(海上表面)에서부터 70cm 이하(以下)로는 완전(完全)히 시계(視界)가 “영(零)”임을 알게되어 수중촬영(水中撮影)이나 수중(水中) TV장치는 불가능(不可能)함을 알게 되었다. (탁도(濁度)의 측정(測定)과 부유물(浮遊物)의 종류(種類)는 후(後)에 밝혀질 것 임).

아울러 금년(今年)에 설치(設置)한 10개(個)의 철제(鐵製)그리이드내(內)의 유물(遺物)을 인양(引揚)한 후(後) 선체(船體)의 좌우현(左右舷) 그리고 선수(船首)와 선미(船尾)쪽을 향(向)하여 좌우현(左右舷)쪽은 반경(半徑) 5m씩 4개소(個所)를 정(定)하고 서베이를 하여 상당양(量)의 유물(遺物)을 船體밖으로 인양(引揚)하였고 선수(船首)와 선미(船尾)쪽은 반경(半徑) 10m의 3개소(個所)에 위치를 정(定)하여 서베이를 한 결과(結果) 이곳 역시 좌우현(左右舷) 선체 밖에서 인양(引揚)된 유물(遺物)만큼 다량(多量) 수습(收拾)되었는데 이 작업(作業)에서 우수한 유물들이 인양(引揚)된 것은 큰 성과(成果)라 할 수 있겠다.

#### 4. 출토유물(出土遺物)

第 4次 발굴(發掘)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유물(遺物)의 내용(內容)을 살펴보면

청자류(靑磁類)	2,787점(點)
백자류(白磁類)	1,289점(點)
흑유(黑釉)(천목(天目))	96점(點)
잡 유(雜 유)	623점(點)
균 요(鈞窯)	63점(點)
금속기류(金屬器類)	86점(點)
석제품류(石製品類)	11점(點)
동전류(銅錢類)	일괄
기 타(其 他)	91점(點)
계(計)	5,046점(點)

이 인양(引揚)되었는데 지금까지 인양(引揚)된 유물(遺物)을 보면 第 1次에 115점(點), 第 2次에 1881점(點), 第 3次에 4,096점(點) 도굴품회수 692점(點), 第 4次에 5,046점(點) 총(總) 12,640점(點)이다.

#### 5. 중요유물(重要遺物)

5,046점(點)이 인양된 유물중 중요한 것을 몇가지를 소개한다.

##### 1) 청자정병(靑磁淨瓶)

R2-1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고(高) 26.5cm, 구경(口徑) 3.5cm, 저경(底徑) 6.3cm의 남송말(南宋末)의 소문청자병(素文靑磁瓶)이다. 이 병(瓶)은 일반적(一般的)인 정병(淨瓶)과 달리 경부(頸部)에 특별(特別)히 돌출된 원형(圓形)테를 갖고 있어 언뜻보아서는 일반(一般) 수병(水瓶)으로 생각되나 유약(釉藥)의 처리나 기물(器物)의 형태(形態)는 남송말(南宋末)의 유행(流行)되던 해맑고 청아(靑雅)한 비청자(飛靑磁)의 유색(釉色)을 제대로 갖춘 청자정병(靑磁淨瓶)이다.

##### 2) 청자수반(靑磁水盤)

G4-17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경(徑) 25cm 고(高) 10.1cm 저경(底徑) 6.5cm의 수반(水盤)으로 기면(器面) 내부(內部)에는 음각당초문(陰刻唐草文)을 힘차게 장식(彫飾)하였고 구연부(口緣部) 외부(外部)에는 음각(陰刻)으로 퇴문대(雷紋帶)를 돌리고 있고 그 밑의 기벽(器壁)에는 역시 당초문(唐草文)을 음각(陰刻)하여 추상적인 형태로 장식(彫飾)하고 있다. 청자(靑磁)의 유색(釉色)은 전형적(典型的)인 용천요계(龍泉窯系)의 갈녹색(褐綠色) 청자유색(靑磁釉色)을 띄고 있으나 기형(器形)의 형태로 보아 저부(低部)를 극(極)히 적게 처리하여 불완전(不完全)한 감(感)이 있다.

##### 3) 청자화형대반(靑磁花形大盤)

Q4-17에서 인양출토(引揚出土)된 것으로 경(徑) 32.4cm 고(高) 6.8cm 저경(底徑) 15.9cm의 대반(大盤)으로 외반(外反)된 구연부(口緣部)는 화판형식(花瓣形式)으로 처리하고 기내(器內)의 중심부(中心部)는 연화문(蓮花文)을 음각(陰刻)하고 외부(外部)의 기벽(器壁)은 역시 상하(上下)로 절단된 연화문으로 장식하였다.

#### 4) 청자대반(靑磁大盤)

7G-6에서 인양(引揚)된 것으로 경(徑) 40.3cm 고(高) 8.2cm 저경(底徑) 22.7cm의 대반(大盤)으로 지금까지 출토(出土)된 것중(中) 가장 대형(大形)으로 퇴문(雷紋)과 음각당초문(陰刻唐草文)을 조식(彫飾)하면서 기내(器內) 중심부(中心部)에는 특이(特異)하게도 모단문(牡丹文)을 음각(陰刻)하여 조식(彫飾)한 전통적(傳統的)인 용천요계(龍泉窯系)인 청자대반(靑磁大盤)이다.

#### 5) 청자대완(靑磁大碗)

H3-1에서 인양(引揚)된 것으로 경(徑) 25.4cm 고(高) 11.5cm 저부(低部)는 6.2cm의 대완(大碗)으로 기내(器內)에는 당초문(唐草文)을 조식(彫飾)하였고 기외면(器外面)에는 구연부(口緣部)가까이에 퇴문대(雷文帶)를 돌렸으며 저부(低部)에 이르러서는 12판(瓣)의 연판문(連瓣紋)을 조식(彫飾)한 용천요계(龍泉窯系)의 청사대완(靑磁大碗)이다.

#### 6) 청자장경수병(靑磁長頸水瓶)

Q1-1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경(徑) 4.1cm 고(高) 14cm 저경(底徑) 5.5cm의 장경수병(長頸水瓶)으로 기면(器面) 전체(全體)에는 세잔한 균열이 덮고 있고 유색(釉色)은 남송청자(南宋靑磁)에서 보이는 청아(清雅)한 옅은 청자유(靑磁釉)로 처리하였다. 장경(長頸)에는 2조(條)로 된 음각세선(陰刻細線)이 상(上)·하(下) 2개소(個所)에 설치(設置)되었다.

#### 7) 청자음각매화문완(靑磁陰刻梅花紋碗)

R6-9에서 인양출토(引揚出土)된 경(徑) 12.3cm 고(高) 4.4cm 저경(底徑) 3cm의 매화문완(梅花紋碗)으로 기외부(器外部)는 소문대(素文帶)로 처리하고 기내면(器內面)에 힘차게 일지(一支)의 매화(梅花)가지를 조식(彫飾)하고 가지마다 우아하게 매화(梅花)를 조식(彫飾)한 용천요계(龍泉窯系)의 청자완(靑磁碗)이다.

#### 8) 청자삼족향로(靑磁三足香爐)

구연부(口緣部)가 내반(內反)되었으며 외부(外部) 구연부(口緣部)에는 양각당초문(陽刻唐草文)을 3개소(個所)에 일정(一定)간격으로 배치(配置)하였고 동일(同一)한 문양대(文樣帶)를 수족형(獸足形)의 3족(足) 위에도 처리하였다. 기내벽(器內壁)에는 모단당초문(牡丹唐草文)을 양각(陽刻)으로 조식(彫飾)한 경(徑) 21.3cm 고(高) 15.6cm 저경(底徑) 8.4cm의 향로(香爐)이다.

#### 9) 청자삼족향로(靑磁三足香爐)

R2-20과 F2-30에서 각각(各各) 일점(一點)씩 출토인양(出土引揚)된 남송대(南宋代)의 청자향로(靑磁香爐)로서 유색(釉色)이 청아(清雅)하고 족부(足部)를 따라 돌기(突起)된 부분(部分)을 3개소(個所)에 각각(各各) 갖고 있으며 경(徑) 10cm 고(高) 8cm와 경(徑) 11.8cm 고(高) 9.6cm의 청자(靑磁)이다.

#### 10) 청자(靑磁)항아리

1Q-1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청자(靑磁)항아리로 경(徑) 16cm 고(高) 42cm 저경(底徑) 15.5cm의 대형(大形)으로서 지금까지 출토(出土)된 청자류(靑磁類)에서 유일(唯一)한 대형(大形)의 청자(靑磁)항아리이다. 항아리 어깨부분에는 11판(瓣)의 연판문(蓮瓣文)을 양각(陽刻)으로 돌렸고 몸체에는 역시 모단당초문(牡丹唐草文)을 양각(陽刻)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저부(底部) 가까이에 이르러서는 파상문(波狀文)을 양각(陽刻)으로 처리한 것이 특색(特色)이며 동체(同體) 상(上)·하(下) 2개소(個所)에 2조(條)의 도

드라진 테선을 각각(各各) 배치(配置)하고 있으며 세계적(世界的)으로도 지금까지 유존되어 오는것중(中) 가장 희귀(稀貴)한 청자(靑磁)항아리가 아닌가 한다.

#### 11) 백자마상배(白磁馬上杯)

M5-1에서 마상배(馬上杯) 8점(點)과 표형주자(瓢形注子) 3점(點)이 동시(同時)에 인양출토(引揚出土)되었는데 마상배(馬上杯) 8점중(點中) 4개(個)는 기내면(器內面)에 용문(龍文)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4개(個)는 초화문(草花紋)으로 처리하였고, 특(特)히 각(各) 마상배(馬上杯)마다 기내면(器內面) 2개소(個所)에 「왕(王)」 또는 「옥(玉)」 자(子)로 생각되는 양각(陽刻) 단자명문(單子銘文)을 조식(彫飾)한 것이 특색(特色)이며 경(徑) 14.1cm 고(高)10.7cm 저경(底徑) 4cm로서 지금까지 출토(出土)된 마상배(馬上杯)에 비(比)하면 수량도 많을뿐만 아니라 가장 우수한 것이다.

#### 12) 백자관이수병(白磁管耳水瓶)

1Q-10에서 출토(出土) 인양(引揚)된 구경(口徑) 2.7cm 고(高) 16cm 저경(底徑) 6cm의 양관이(兩管耳)를 구비한 백자장경수병(白磁長頸水瓶)이다.

#### 13) 백자소형마상배(白磁小型馬上杯)

1-1Q-16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구경(口徑) 8.3cm 고(高) 8.5cm 저경(底徑) 3.4cm의 마상배(馬上杯)로 기외면(器外面)에는 2개소(個所)에 도사형(道士型)으로 생각되는 양각인물상(陽刻人物像)을 배치(配置)하였고 인물상(人物像)과 인물상(人物像) 사이에는 양각연당초문(陽刻連唐草紋)으로 조식(彫飾)하면서 연결을 지은 우아(優雅)한 마상배(馬上杯)이다.

#### 14) 백자음각모단문매병(白磁陰刻牡丹文梅瓶)

F3-39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구경(口徑) 6cm 고(高) 28cm 저경(底徑) 11cm의 매병(梅瓶)으로 어깨부분에는 2조(條)의 음각세선(陰刻細線)을 2개소(個所)에 배치(配置)하였고 기저부(器底部) 가까이에도 2조(條)의 세선(細線) 상(上) · 하(下) 2단(段)으로 배치(配置)하였다. 또한 동체(同體)에는 양각(陽刻)된 모단문(牡丹文)을 조식(彫飾)하였고 저부(底部)에는 육판(六瓣)의 중판연화문(重瓣蓮花文)을 들렸다.

#### 15) 흑유소완(黑釉蘇碗)

F2-33에서 인양출토(引揚出土)된 구경(口徑) 11.3cm 고(高) 6.4cm 저경(底徑) 4.4cm의 작은 완(碗)으로 기내외면(器內外面)에 우수한 천목유약(天目釉藥)을 시유(施釉)한 완(碗)이다.

#### 16) 흑유(黑釉)항아리

E2-6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총고(總高) 23.5cm 구경(口徑) 14.3cm 동체고(胴體高) 19.3cm 저경(底徑) 9.9cm의 뚜껑을 갖춘 흑유(黑釉)항아리로 항아리 내(內)에는 2차에 걸쳐 시유한 천목유약(天目釉藥)이 질게 덮혀 있다. 특(特)히 흑유유약(黑釉釉藥) 위에는 14개처(個處)에 일직선(一直線)으로 다시 선조문(線條文)의 산화철(酸化鐵) 유약(釉藥)을 시유(施釉)하여 언뜻보기에 주름모양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뚜껑의 이면(異面)에는 「강사(綱司)」라는 묵서(墨書)로 된 명문(銘文)이 있어 주목되는 것으로 「강사(綱司)」는 선주(船主)나 선장(船長)의 기물(器物)을 표시(表示)하는 것으로 일본(日本)에서는 「장강(張綱)」이라는 명문(銘文)이 있는 것이 출토(出土)되었다. 그리고 흑유(黑釉)항아리로서는 오직 유일(唯一)한 것이다.

#### 17) 흑유완(黑釉碗)

R6-28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구경(口徑) 15.6cm 고(高) 6.4cm 저경(底徑) 6.1cm의 천목유약(天目釉藥)을 질게 시유(施釉)한 완(碗)으로서 주목(注目)되는 것은 구연부(口緣部)에만 백자유약(白磁釉藥)을 별도(別途)로 시유(施釉)하여 기내외면(器內外面)을 확연(確然)히 구분(區分)할 수 있게끔 한 특수(特殊)한 형식(形式)의 완(碗)이다.

#### 18) 흑자유완(黑磁釉碗)

1Q-8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경(徑) 12.4cm 고(高) 7cm 저경(底徑) 4.5cm의 전형적(典型的)인 건요계(建窯系)의 흑유완(黑釉碗)으로 지금까지 출토(出土)된 흑유완(黑釉碗)에서는 볼 수 없는 음각명문(陰刻銘文)이 굽내(內)에 「칠(七)」자(字)로 음각(陰刻)하였다.

#### 19) 흑유수병(黑釉水瓶)

전형적(典型的)인 수병(水瓶)의 형식(型式)을 갖춘 것으로 외부(外部)에 우수한 흑색(黑色) 유약(釉藥)을 시유(施釉)하였고 구연부(口緣部)는 외반(外反)되고 있고 가늘게 내려 뺀 경부(頸部)는 우수하게 처리하였다. 특(特)히 구연부(口緣部)에서 동체하부(胴體下部)까지는 언뜻보아 유적천목유(油滴天目釉)와 같이 흑유(黑釉)위에 선조(線條)와 유사한 第2의 산화철유약(酸化鐵釉藥)을 시유(施釉)하여 선조문양(線條文樣)과 비슷하게 하였다. 그러나 오랜동안 해중(海中)에 있었던 관계로 동체일부(胴體一部) 유약(釉藥)의 광택(光澤)이 퇴락되어 있을뿐 전체적으로 우수하다.

#### 20) 흑유양각모단문매병(黑釉陽刻牡丹文梅瓶)

4B-15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구경(口徑) 5.3cm 고(高) 28cm 저경(底徑) 8.4cm의 흑유(黑釉) 모단문매병(牡丹文梅瓶)이다. 매병(梅瓶)의 어깨부분에는 22판(瓣)의 연판문(蓮瓣文)을 양각(陽刻)하여 각판(各瓣)마다 흑유약(黑釉藥)을 시유(施釉)하였다. 또한 병(瓶)의 아래부분에는 14판(瓣)의 연판문(蓮瓣文)을 견대부분(肩帶部分)과 동일(同一)하게 양각(陽刻)하여 흑유(黑釉)로 처리하였다. 병(瓶)의 동체부분(胴體部分)에는 모단당초문(牡丹唐草文)을 양각(陽刻)하여 나타내고 그 부분에 흑유(黑釉)를 입혔으며 여타(餘他)의 부분(部分)은 격자문(格子門)으로 처리하고 그 부분 역시 흑유(黑釉)로서 처리하였다. 이와같은 류(類)의 매병(梅瓶)은 지금까지 출토(出土)된 예(例)가 없는 특수(特殊)한 매병형식(梅瓶形式)으로 그 문양(文樣)처리 수법(手法)도 주목되는 것으로 오직 유일(唯一)한 매병이다.

#### 21) 잡유사이(雜釉四耳)항아리

이 항아리 역시 선체(船體) 밖에서 인양(引揚)된 구경(口徑) 10.9cm 고(高) 39.8cm 저경(底徑) 14cm의 잡유(雜釉)항아리로서 어깨부분에는 4곳에 4이(耳)를 부착시켰으며 또한 「청향(清香)」이라는 명문(銘文)이 각출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 22) 흑칠기완(黑漆器碗)

P4-1에서 3개(個) 일식(一式)으로 출토(出土) 인양(引揚)된 칠기완(漆器碗)으로

대(大)	경(徑) 17.8cm	고(高) 7.5cm	저경(底徑) 9.4cm
중(中)	" 16.5cm	" 6.5cm	" 9.5cm
소(小)	" 15.5cm	" 6cm	" 8.5cm

흑칠기완(黑漆器碗)으로 특(特)히 가장 적은 칠기(漆器)의 저부(底部)에는 주자(朱字)로 「신미금당 진만일숙조(辛未今唐 陣萬一叔造)」라는 명문(銘文)이 쓰여 있어 선박(船舶)의 연대(年代)와 도자기(陶磁器)의 하한연대(下限年代)를 정(定)할 수 있는 귀중(貴重)

重)한 칠기완(漆器碗)이다. 그러나 3개(個)가 일조(一組)로 된 전형적(典型的)인 중국제(中國製) 칠기(漆器)이나 현(現) 상태(狀態)로 보아서는 명문(銘文)이 있는 가장 적은 완(碗)이외에 2개(個)에는 모두 흑칠(黑漆)이 퇴락되어 상태가 그다지 양호한 편이 못된다.

신미(辛未)는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연표(年表)에 의하여 1211년, 1271년, 1331년, 1391년에 해당되는데 이곳에 함께 출토(出土)된 도자기의 성격상 1331년의 신미(辛未)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23) 소형칠기완(小形漆器碗)

R-11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구경(口徑) 11.3cm 고(高) 5.8cm 저경(底徑) 3.8cm의 전형적(典型的)인 중국칠기소완(中國漆器小碗)이다. 특히 기면(器面) 내부(內部)는 주칠(朱漆)로서 처리하고 외부(外部)는 흑칠(黑漆)로서 처리한 것이 주목된다.

#### 24) 원형(圓形) 및 장방형묵(長方形墨)

第 4次발굴(發掘)에서 처음으로 원형(原型)과 장방형(長方形)의 먹이 출토(出土)된 바 원형(原型)의 먹은 표면(表面)에 단용(單龍)을 양각(陽刻)으로 조식(彫飾)하고 그 이면(裏面)에 「서상향계(徐祥鄉製)」라는 명문(銘文)이 있고 장방형(長方形)의 먹에는 전후면(前後面)에 명문(銘文)이 있으나 판독(判讀)되는 것은 「수봉친제(秀峰親祭)」이고 나머지는 변체(變體)로된 명문(銘文)으로 판독(判讀)이 어렵다.

#### 25) 석연(石硯)

P4-28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폭 8.2cm×8.6cm이고 길이 12.7cm 두께 2.1cm의 적갈색(赤葛色)이 나는 돌벼루로서 상단부(上段部)보다 하부(下部)가 넓게 처리된 것이 특색(特色)이다.

#### 26) 팔각석연(八角石硯)

1Q-35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것으로 팔각(八角)의 모를갖고 있으나 내부(內部)는 원형(圓形)으로 처리하였다. 각(各)모서리마다 수족형(獸足形)의 돌기(突起)된 부분(部分)을 조식(彫飾)하였다. 팔각(八角)의 각면(各面)마다에는 팔괘(八卦)를 음각(陰刻)으로 표현(表現)하였다.

#### 27) 엽문석연(葉文石硯)

R6-30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최대경(最大徑) 12.6cm 최대폭(最大幅) 9.8cm 두께 2cm의 엽문형(葉文形)의 돌벼루이나 물을 담는 부분의 벼루데에는 동제(銅製)로 장식하는 수법(手法)을 보인 특이(特異)한 돌벼루이다.

#### 28) 뢰호소계 청자매병(瀨戶燒系 靑磁梅瓶)

R2-26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구경(口徑) 4cm 고(高) 26cm 저경(底徑) 10cm의 매병(梅瓶)으로서 구연부(口緣部)는 돌기(突起)된 테가 있고 동체(胴體)의 외벽(外壁)에는 모단문(牡丹文)을 음각(陰刻)으로 나타내고 있고 시유(施釉)한 청자유약저질(靑磁釉藥底質)이고 소성도(燒成度)가 낮은 매병(梅瓶)이다. 특(特)히 일부분(一部分)의 청자유약(靑磁釉藥)은 이미 탈락되어 있으며 기물(器物)의 형태(形態)나 유약(釉藥)처리가 일본초기(日本初期) 뢰호소계(瀨戶燒系)의 청자류(靑磁類)를 나타내는 매병(梅瓶)이다.

#### 29) 칠회추초문주칠완(漆繪秋草紋朱漆碗)

선미부분(船尾部分)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3개일식(個一式)의 주칠완(朱漆碗)으로 3개중(個中) 2개(個)는 구연부(口緣部)가 반파(半破)된 정도이고 그 중(中) 가장 적

은 주칠완(朱漆碗)만이 구연부(口緣部) 2개소(個所)에 약간의 파손이 있을 뿐 완전(完全)하다. 주목되는 것은 3개(個)모두 기내외면(器內外面)에 평안시대말(平安時代末)내지 겸창막부초기(兼瘡莫府初期)에 유행(流行)하였던 추초문(秋草文)으로 회칠(繪漆)한 완(碗)으로서 중요시(重要視)된다.

大 15cm×7.1cm 中 14.3cm×6.6cm 小 13.8cm×5.7cm×6.7cm

### 30) 흑칠목제교각연(黑漆木製交脚硯)

R5-14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목제연(木製硯)으로 조립식(組立式)으로 되어 있다. 다리를 피면 한 개의 교각형(交脚形)의 벼루가 되나 원상태로 접으면 일단의 받침대를 갖는 벼루로 되는 형태이고 상단(上段)의 벼루는 장(長) 18.2cm 두께 1.9cm 폭(幅) 7.5cm이며 하단(下段)의 폭(幅)은 8.4cm 장(長) 24cm 두께 1.5cm이다. 이것이 교각(交脚) 구실을 하는 부분이며 상단(上段)의 벼루는 상단부(上段部)에 크로바형의 수구(水溝)를 갖고 그 밑부분으로 내려올수록 본연(本然)의 벼루형식을 갖고 있다. 일설(一說)에는 겸창막부시대(兼瘡莫府時代)의 궁녀(宮女)들이 사용(使用)하던 벼루가 현재(現在)도 일본(日本)에 남아있다하며 이와 거의 동질(同質)의 것이라 하나 다만 특이(特異)한 것은 교각(交脚)으로 이루어지는 조립식 부분만이 없다는 것이다.

### 31) 동경(銅鏡)

R2-5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경(徑) 11.5cm 두께 1cm의 동경(銅鏡)이다. 이 동경(銅鏡)에는 경鈕(鏡鈕)을 갖고 있는 바 일본(日本) 동경(銅鏡)에서 보이는 귀형鈕(龜形鈕)을 갖고 있고 해상(海上)에다 누각(樓閣)을 세우고 멀리서 조거(鳥居)(도리이)를 나타내고 있고 상면(上面)에는 불상(佛像)을 나타내었다. 중국경(中國鏡)이나 한국경(韓國鏡)은 외구(外區)와 내구(內區)를 구분(區分)하고 문양(文樣)처리는 대부분(大部分) 내구(內區)에다 처리를 하나 일본동경(日本銅鏡)은 내구(內區)와 외구(外區)는 형식적(形式的)으로만 구분(區分)하고 문양처리(文樣)는 내외구면(內外區面)에 전면적(全面的)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색(特色)으로 본(本) 동경(銅鏡)도 이와같은 수법(手法)을 갖고 있으며 퇴호내해(瀨戶內海)에 있는 신불일체사상(神佛一體思想)을 나타내는 엄도신사(嚴島神社)(이즈구시마진자)의 정경을 방불케하는 풍경이 양각되어 있다.

### 32) 청동경(靑銅鏡)

H3-19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경(徑) 11.2cm 고(高) 0.8cm의 동경(銅鏡)으로 이 역시 내구(內區)와 외구(外區)를 구분(區分)하고 그 안에 쌍학문(雙鶴文)을 6개(個) 조식(彫飾)하였고 외구(外區)에도 학문(鶴文)을 조식(彫飾)한 동경(銅鏡)이다.

### 33) 칼코(심(鐔))

Q3-15에서 출토인양(出土引揚)된 동경(銅鏡) 칼코로서 최대경(最大徑) 7.6cm×8.4cm 두께 0.1cm, 도구(刀溝)의 폭(幅)이 2.9cm로 형태로 보아 일본도(日本刀)의 칼코 형태를 하고 있다.

### 34) 인골(人骨) 및 열매

선체(船體) 내부(內部)에서 두개골(頭蓋骨)이 출토(出土)되었는 바 측정(測定)한 결과(結果) 중국인(中國人)으로 판명되었고 열매 역시 第 3次때와 같이 남방계통(南方系統)의 과핵(果核)을 인양(引揚)했다.

### 35) 동전류(銅錢類)

鑄貨名	銘文體	徑	時代	備考
嘉定通寶	楷書體	2.9cm	1208~1224(宋)	背面“十”“一”
“元寶	“	2.4cm	“	背面“十”“三”
至道元寶	草書體	2.5cm	995~997(宋)	
“元寶	楷書體	2.5cm	“	
咸平元寶	“	2.5cm	998~1003(宋)	
慶元通寶	楷書體	3.1cm	1195~1200(南宋)	背面“三”
“	“	2.5cm	“	“

page19. 표

鑄貨名	銘文體	徑	時代	備考
慶元通寶	小篆書體	2.9cm	“	
元祐通寶	小楷書體	2.5cm	1086~1094(宋)	
“	小篆書體	2.4cm	“	
“	楷書體	3.0cm	“	
大觀通寶	“	2.4cm	1107~1110(宋)	
元祐通寶	“	2.45cm	1098~1100(宋)	
“	小篆書體	3.0cm	“	
宋通寶	楷書體	2.5cm	?	
宣和通寶	楷書體	2.45cm	1119~1125(宋)	
“	小篆書體	2.4cm	“	
“	隸書體	3.0cm	“	
乾元重寶	楷書體	2.45cm	758~760(唐)	
聖宋重寶	小篆書體	2.45cm	?	
“	楷書體	2.4cm	?	
紹熙元寶	“	2.4cm	1190~1194(南宋)	背面“三”“口”
“	“	3.1cm	“	“元”
熙寧元寶	“	2.5cm	1068~1077(北宋)	
“	小篆書體	2.4cm	“	
熙寧重寶	“	2.9cm	1068~1077(北宋)	
“	楷書體	3.1cm	1068~1077(北宋)	
開元通寶	“	2.5cm	713~741(唐)	背面“一”
紹聖元寶	小篆書體	2.35cm	1094~1098(宋)	
“	楷書體	3.0cm	“	
政和通寶	楷書體	2.45cm	1111~1117(宋)	
“	小篆書體	2.45cm	“	
“	“	2.9cm	“	
景祐元寶	楷書體	2.45cm	1034~1038(宋)	
皇祐通寶	“	2.45cm	?	
皇祐重寶	小篆書體	2.5cm	?	
皇祐通寶	小楷書體	2.4cm	?	背面“五”
大定通寶	“	2.5cm	1161~1189(金)	“西”
元豐通寶	楷書體	2.4cm	1078~1085(宋)	
“	小篆書體	2.95cm	“	
“	“	2.5cm	“	
“	楷書體	2.95cm	“	
淳化元寶	“	2.4cm	990~994(宋)	
“	草書體	2.4cm	“	
天聖元寶	楷書體	2.4cm	1023~1031(宋)	
“	小篆書體	2.5cm	1023~1031(宋)	
天聖通寶	楷書體	2.2cm	1308~1311(元)	
太平通寶	“	2.55cm	1117~1121(宋)	
天聖通寶	“	2.4cm	1021~1031(宋)	
景德通寶	“	2.4cm	1004~1007(宋)	
“	“	“	1056~1063(宋)	
“	小篆書體	2.5cm	“	
嘉祐元寶	楷書體	2.5cm	“	

page20. 표

鑄貨名	銘文體	徑	時代	備考
明道元寶	小篆書體	2.5cm	1032~1033(宋)	
紹定元寶	楷書體	2.45cm	1228~1233(南宋)	背面“四”“三”“二”
紹定元寶	楷書體	3.0cm	1228~1233(南宋)	背面“三”
治平元寶	“	2.5cm	1064~1067(宋)	
治平元寶	小篆書體	2.4cm	“	
大淳化元寶	楷書體	2.95cm	“	背面“元”
咸淳元寶	“	2.9cm	1241~1252(南宋)	
咸淳元寶	“	2.75cm	1265~1274(南宋)	背面“三”
紹興元寶	“	2.8cm	1131~1162(南宋)	
紹興元寶	小篆書體	2.9cm	“	背面“一”
至道元寶	楷書體	2.45cm	1054~1055(宋)	
至道元寶	“	2.4cm	“	
隆興元寶	楷書體	3.0cm	1163~1164(南宋)	
隆興元寶	“	2.35cm	1234~1236(南宋)	背面“元”
嘉泰元寶	“	2.4cm	1156~1161(南宋)	
嘉泰元寶	“	2.5cm	1201~1204(南宋)	背面“元”
景定元寶	“	2.9cm	“	背面“三”
景定元寶	“	2.4cm	1260~1264(南宋)	
淳熙元寶	“	2.4cm	1205~1207(南宋)	背面“元”
淳熙元寶	“	2.4cm	1174~1189(南宋)	背面“十”
淳熙元寶	“	2.9cm	“	背面“七”“六”
唐國通寶	小篆書體	2.35cm	“	
唐國通寶	小楷書體	2.85cm	1127~1130(南宋)	
周元通寶	小篆書體	2.85cm	“	
周元通寶	隸書體	2.4cm	“	
祥符元寶	楷書體	2.5cm	1008~1016(北宋)	
慶曆元寶	“	2.4cm	“	
乾道元寶	“	3.1cm	1041~1048(宋)	
崇寧元寶	“	2.8cm	1165~1173(南宋)	
崇寧元寶	隸書體	3.3cm	1102~1106(宋)	
崇寧元寶	楷書體	3.4cm	“	
計		84種		

## 6. 발굴성과(發掘成果)

1, 2, 3, 4차에 걸쳐 발굴(發掘)한 결과(結果) 第3차((次) 발굴(發掘)에서 시도(試圖) 하였던 철제(鐵製)그리드 설치(設置)로 인(因)해 第4차((次) 발굴(發掘)역시 철제(鐵製) 그리드를 전부(全部) 설치(設置)하므로써 시계(視界)가 영(零)인 상태에서도 선체(船體)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성과(成果)가 있었으며 이로 인(因)해서 선체(船體)의 길이가 28.4m와 선체(船體) 폭(幅)8m임을 도면상(圖面上)으로 작성(作成)하게 되었다. 또한 절대년대(絶對年代)를 정(定)할 수 있을만큼의 중요(重要)한 명문(銘文)이 있는 것을 발견(發見)하게 된 것이며 선원(船員)이 중국인(中國人)임을 두개골(頭蓋骨) 출토(出土)로 확인(確認)하게 되었다. 아울러 교역선(交易船)이 선적(船積)하는 교역품(交易品)의 내용(內容)을 선수부분(船首部分) 선복부분(船腹部分) 선미부분(船尾部分)에 따라 각각(各各) 다르게 선적하였던 상태를 대략 파악하게 되어 당시(當時)의 교역선(交易船)에 선적(船積)하는 상태(狀態)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第3차 발굴((發掘))에서 인양(引揚)된 고려자기(高麗磁器) 3점(點)과 이번 第4차((次) 발굴((發掘))에서 출토(出土) 인양(引揚)된 일본제품(日本製品) 약(約)10점(點)으로 인(因)해 중계무역(中繼貿易)도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낱게 하였으며 현재(現在) 해저부(海底部)에 침몰(沈沒)되어 잔존하고 있는 선체부분(船體部分)도 Air-Lift라는 제토기를 사용(使用)하므로 인(因)해 어느정도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C6지역에 에어리프트 작업을 하게된 결과 격벽부(隔壁部)에서부터 선저(船底) 부분까지 약(約) 1m 30~40cm의 깊이에서 선저부분(船底部分)으로 생각되는 목제부분(木製部分)이 확인되므로써 대체로 2m이내(以內)의 부분만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바이다. 또한 명문(銘文)이 있는 저울추가 나오므로써 영파항(寧波港)을 떠나 교역(交易)에 임(臨)했던 교역선(交易船)의 출발지점(出發地點)을 확인(確認)하게 된 것이다.

이상((以上))으로 볼 때 본(本) 교역선(交易船)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경제사적(經濟史的)인 면(面)과 교역품(交易品)의 종류(種類) 교역(交易)의 범위 그리고 원(元)과 고려(高麗), 고려(高麗)와 일본(日本), 일본(日本)과 원(元)과의 교역사적(交易史的)인 면(面)도 고찰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은 선체((船體))를 거의 완전(完全)하게 인양(引揚) 보존(保存)하느냐의 문제(問題)만이 기술적(技術的)인 면(面)이나 재정적(財政的)인 면(面)에서 큰 문제(問題)인 동시(同時)에 지금까지 출토(出土)인양(引揚)된 유물(遺物)에 대(對)하여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판단과 정리가 있어야 될 줄로 사료된다.



도관 인양 유물 잡유계통  
 [圖版 1] 引揚된 遺物 雜釉系統

[圖版 1] 인양(引揚)된 유물(遺物) 잡유계통(雜釉系統)



도관 인양 유물 청자 백자계통  
 [圖版 2] 引揚된 遺物 靑磁, 白磁系統

[圖版 2] 인양(引揚)된 유물(遺物) 청자(靑磁), 백자계통(白磁系統)



도판 청자대반인양상태  
[圖版 3] 靑磁大盤引揚狀態

[圖版 3] 청자대반인양상태(靑磁大盤引揚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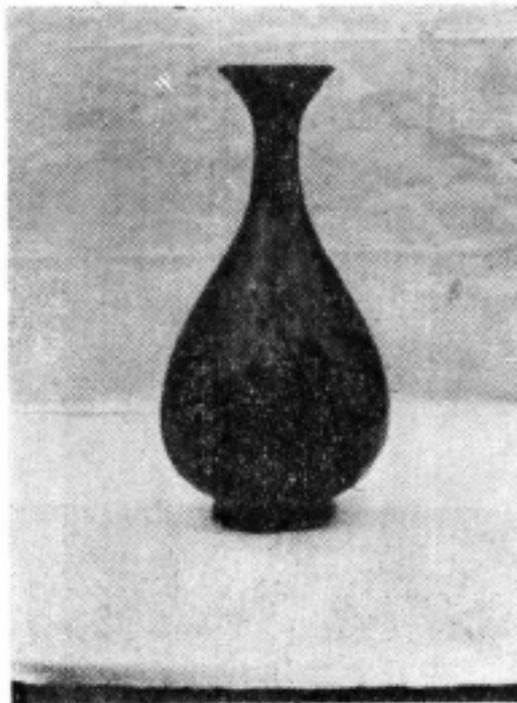
도판 청자수반인양상태  
[圖版 4] 靑磁水盤引揚狀態

[圖版 4] 청자수반인양상태(靑磁水盤引揚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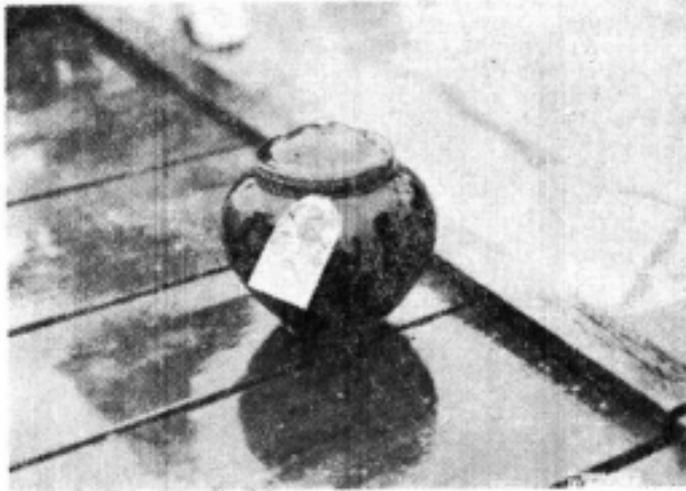
도판 청자수병  
〔圖版 5〕 靑磁水瓶

〔圖版 5〕 청자수병(靑磁水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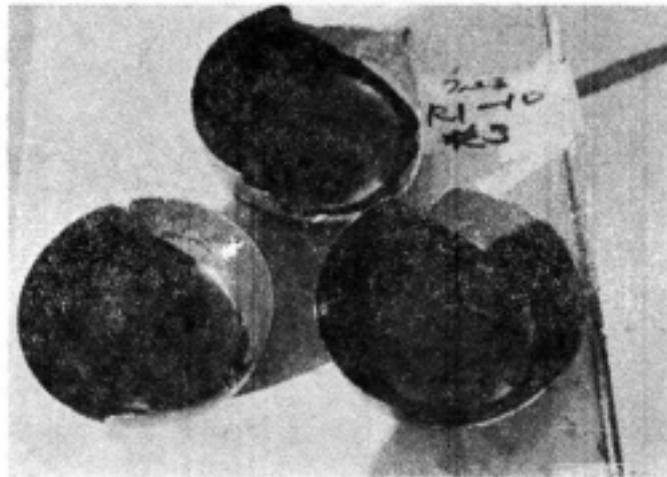


도판 흑유수병  
〔圖版 6〕 黑釉水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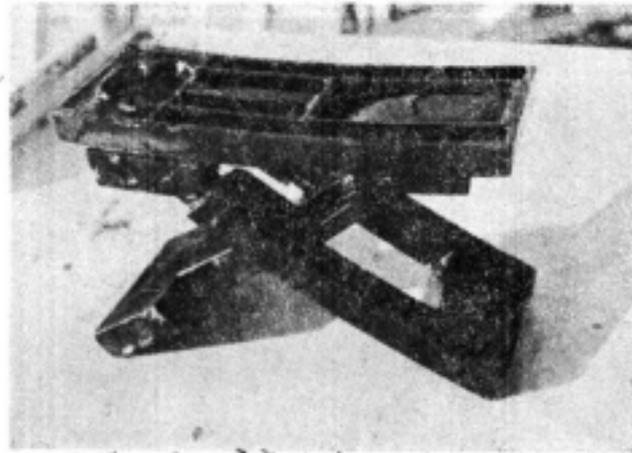
〔圖版 6〕 흑유수병(黑釉水瓶)



도판 흑유  
 [圖版 7] 黑釉항아리 목서 명문  
 (蓋에 「網司」의 墨書 銘文이 있음)  
 [圖版 7] 흑유항아리(黑釉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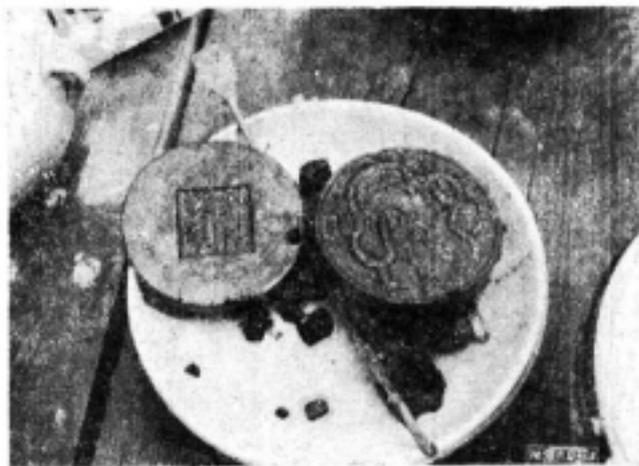


도판 칠회추초문주칠완  
 [圖版 8] 漆繪秋草紋朱漆碗  
 [圖版 8] 칠회추초문주칠완(漆繪秋草紋朱漆碗)



도판 목제 흑칠 조립식 교각  
 [圖版 9] 木製 黑漆 組立式 交脚벼루

[圖版 9] 목제(木製) 흑칠(黑漆) 조립식(組立式) 교각(交脚)벼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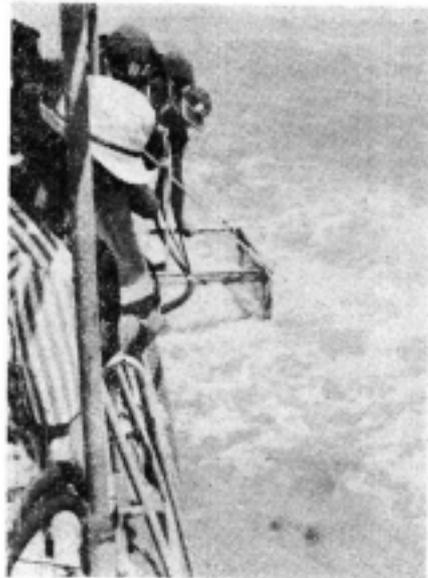
도판 원형 막  
 [圖版 10] 圓型 막  
 (「徐祥鄉製」의 명문유(銘文有))

[圖版 10] 원형(圓型) 막  
 (「徐祥鄉製」의 명문유(銘文有))



도판 칠기 잡유호 동제용기 청자등 인양상태  
 [圖版 11] 漆器, 雜釉壺, 銅製容器, 青磁等 引揚狀態

[圖版 11] 칠기(漆器), 잡유호(雜釉壺), 동제용기(銅製容器), 청자(青磁) 등(等) 인양상태 (引揚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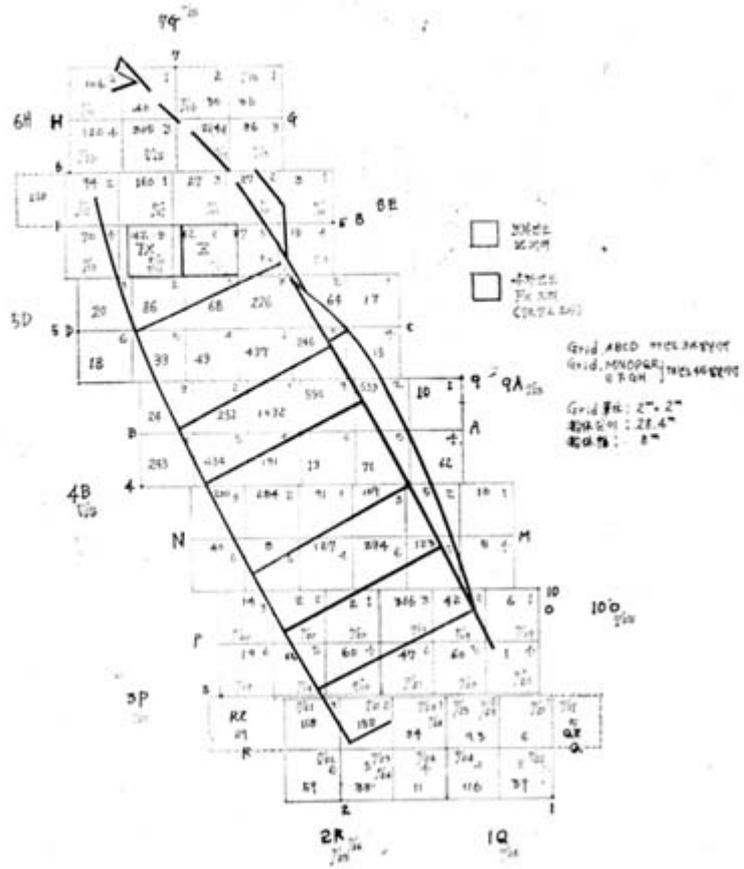


도판 작업 광경  
 [圖版 12] C6 Air Lift 作業 光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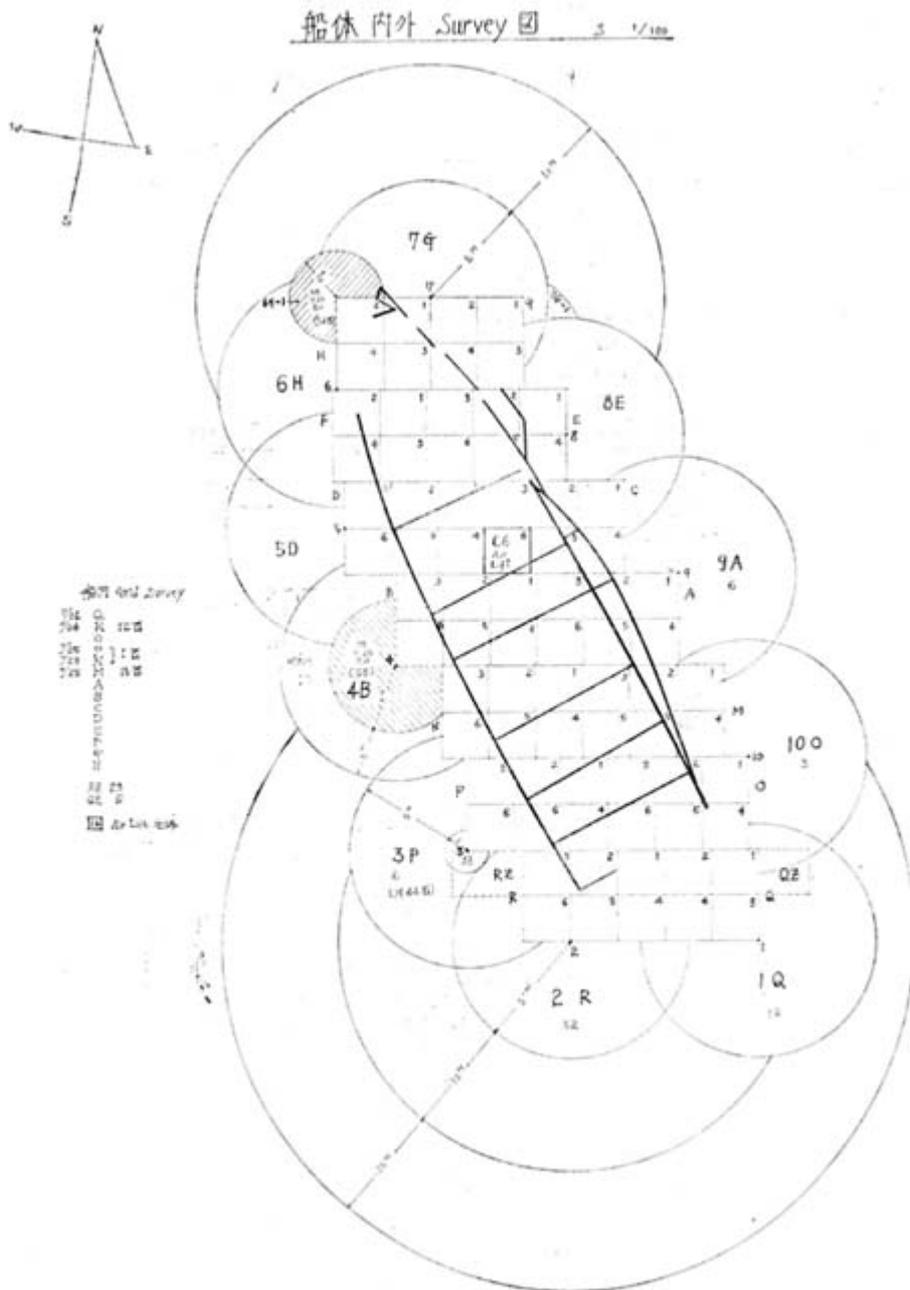
[圖版 12] C6 Air Lift 작업(作業) 광경(光景)



Grid 内 作 業 圖  $s : 1/100$



Grid 내(內) 작업도(作業圖) s:1/100



선체(船體) 내외(内外) Survey도(圖) s:1/100